



이: 특&Talk

43세 최향남 불굴의 ML 노크...“도전하라” 후배들에 말 없는 가르침

인생지사 새옹지마라고 했다. 정답은 모르겠다. 인생은 그렇다. 맞는 답은 없기에 그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투수 최향남이 KIA의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아니 본인 스스로 요청을 해 KIA의 틀에서 벗어났다. 버릴 수 없는 꿈, 미국 이다시 그에게 손짓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향으로 돌아온 최향남은 속사포로 공을 뿌리며 노장의 힘을 보여줬다. 올 시즌 초반에도 견재했다. 후배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신음할 때 프로야구 최고령 최향남은 마운드로 달려가 불을 끄고 불펜 의자가

식기 전에 달려 내려와 자리에 앉았다. 화려한 4월이 끝날 때쯤 최향남이 재활군으로 내려갔다. 기억없는 작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뜨거운 7월 다시 돌아와 그의 남겨진 야구 인생을 불살랐다. 1971년생인 최향남과 동료로 함께 땀을 흘린 막둥이 투수 한승혁(1993년생)은 무려 22살 차. 한승혁이 태어나기도 전인 1990년 프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의 열정과 노력은 여전히 후배들의 허를 내두르게 한다. 묵묵히 25번째 그리운드림을 준비하던 최향남이 야구 인생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울타리를 다시 뛰쳐나갔다.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이 자신이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다. 최향남은 “미국에 가는 것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번에는 기회를 잡는 게 쉽지 않고 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한번은 더 해볼 수 있는 마음,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도전의 연속, 늘 자신만만하던 최향남이

지만 도전을 앞둔 속마음은 ‘힘들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남아있고, 열정이 남아있기에 최향남은 또 도전을 외쳤다. “나는 특이한 케이스다. 사람들이 멋있다고도 하는데 지쳐죽겠다”며 웃던 최향남은 “KIA 입장에서 나이 많은 선수가 버티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도전을 한다. 야구 인생이 열만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은 화려하게 보내고 싶다. 그게 미국이 되든 KIA가 되든 화려하게 은퇴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마운드에서 가진 실력을 충분히 보여줘

라. 최고의 승부를 하고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해라. 내 불을 던지지 못했다면 아쉬우니까 반성하고 다시 도전해라.’ 최향남은 후배들에게 최선과 도전을 얘기하곤 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말하는 도전을 최향남은 ‘감동적인 도전’이라고 말한다. 자신에게 최선이지 못한 이들에게는 부러운 도전일 것이다. 최향남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는 것 같다. 도전만 있을 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결산

초반 부진 1부리그 진입 ‘발목’ 남 감독 형님리더십 내년 ‘기대’

광주 FC의 2013시즌은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다. K리그의 막내 광주 FC는 지난해 첫 강등팀이라는 운명을 맞았다. 승리에 대한 절박함과 승격에 대한 간절함으로 준비했던 올 시즌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초반부진으로 선두권 밖을 맴돌면서 클래식 재진입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강등 후유증’에서 벗어난 광주는 후반기 특유의 색을 찾으며 희망을 남겼다.

남 감독대행은 고양과의 최종전에 양세운을 투입하며 선수 전원을 올 시즌 그리운드림에 올리는 등 ‘형님 리더십’으로 젊은 선수들을 다독였다. 뒤늦게 시동이 걸린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 시즌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후반기 짚주었다. 남 감독대행은 “우리는 강등돼서 내려온 팀이고 다른 팀은 내셔널리그에서 올라온 팀이다. 상대는 한번 더 올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 결코 이곳이 쉬은 곳은 아니다. 켈리지라고 해서 클래식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승격을 하지 못해서 실망을 하셨을 것인데 올라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모두가 광주만의 축구를 이해하고, 팬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투구를 열어본 켈리지는 매서웠다. 우승후보로 주목받았지만 여법구 감독 체제로 새출발한 광주의 초반 성적은 좋지 못했다. 초반 10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는데 그쳤다. 예상과 달리 현실은 매서웠다. 강등 여파로 이승기·김동섭·박기동·박호진 등 팀을 대표하던 선수들이 떠나면서 새로 관을 짜야했고, 켈리지팀들은 탄탄한 팀워크와 도전 정신으로 맞섰다. ‘K리그 올스타팀’을 구성한 상주 상무와 경향축구단의 벽도 높았다. 예상치 못했던 거센 도전 속에 우왕좌왕 흘러보내던 전반기는 광주에게는 큰 아쉬움이 됐다.

◇물러설 곳 없는 광주의 2014시즌 광주는 2014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33명의 선수단을 28명 수준으로 줄이며 ‘작지만 강한 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민구단과 2부리그라는 현실을 감안한 팀 체질 개선, 팀을 필요로 하고 팀이 필요로 한 선수로 2014시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력 향상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팀을 꾸려나갔겠다는 것이다.

주축선수들의 이탈과 부상이 맞물리면서 광주의 초반은 더 험악했다. 안정되게 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주장 박병주가 부상으로 단 4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쳤다. 광주 초대 멤버로 자리를 지켜온 김은선, 김수범, 박희성도 부상이 시달리면서 순위 싸움의 시동을 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남기일 감독대행, 희망을 심었다. 내용과 결과에서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반기. 결국 8월 중순 남기일 수석코치가 지휘봉을 잡게 됐다. 선수들의 위기의식과 ‘재미있는 축구’라는 남 감독대행의 전술이 맞아떨어지면서 점차 젊은 팀의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짧은 패스 위주로 공격을 풀며 가벼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리운드림을 누렸다. 재미있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의 구상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후반기 창단 첫 3연승을 달리는 등 두 차례 3연승에 성공했다. 안양과 충주를 상대로는 4-0의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월드컵 스키 1위표 활강

스웨덴 제시카 리펠-비커비(29)가 2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비버 크리크의 랩터 코스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여자 월드컵 활강 스키 경기(Women's World Cup Giant Slalom Ski Race) 2차시기에서 날렵하게 기문을 통과하고 있다. 제시카는 2분17초92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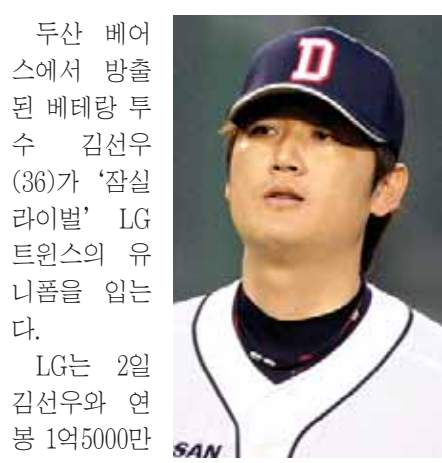
“U-20 월드컵 꼭 유치한다”

방출 김선우, LG 유니폼

정부대표단, FIFA 집행위 파견

2017년 국제 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유치를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일(현지시간) 브라질 사우파도르에서 열리는 FIFA 집행위원회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유치를 신청한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국을 결정한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 재외공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FIFA 관계자와 집행위원 면담 등을 추진, 막바지 유치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7년 FIFA U-20 월드컵 유치를 희망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멕시코,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

잔 등 12개국이다. FIFA U-20 월드컵은 각국 A대표팀이 참가하는 월드컵을 비롯해 17세 이하(U-17) 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컵과 함께 FIFA가 주최하는 4대 축구대회 중 하나이며 월드컵 다음 가는 대회로 평가받는다.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2002년 월드컵(일본과 공동 개최), 2007년 U-17 월드컵을 개최한 우리나라가 2017년 U-20 월드컵 유치를 성공하게 되면 여자 월드컵을 제외한 FIFA 주관 남자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축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대회 유치 시에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지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별도의 국비 없이 FIFA 지원금, 대한축구협회 자체 부담 등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국제대회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두산 베어스에서 방출된 베테랑 투수 김선우(36)가 ‘잠실 라이벌’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는다. LG는 2일 김선우와 연봉 1억5000만 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거쳐 2008년 두산에 입단한 김선우는 6시즌 동안 통산 151경기에 출장, 57승 45패와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7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두산의 가장 믿음직한 토종 에이스로서 마운드의 ‘기둥’ 역할을 했으나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합해 11승 15패에 그치는 등 부진해 결국 올 시즌 후 두산과 재계약하지 못했다. 김선우는 두산의 코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팀과 협상을 시작,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LG와 인연이 닿았다. 김선우는 “10년 동안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야구선수로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두산 구단 및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했지만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LG행을 결정했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신 김기태 LG 감독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홍스페이스 SPAC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헤드기능 5개 코너소파 195만원 | 리콜라이너 2개 + 헤드기능 3개 | 5인 이태리 무광대리석 식탁 195만원 | 앤틱식탁 15종류